

곡성섬진강천문대, ‘슈퍼문’ 공개 관측회 연다

올해 가장 큰 슈퍼문 내일 등장
오후 8시부터 천체망원경 관측
참가자 과학교구·브로마이드 증정
스마트폰 달 사진 촬영 체험 등

곡성군이 천체망원경 관측부터 달 사진 촬영 체험까지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했다.

15일 곡성군에 따르면 올해 가장 큰 슈퍼문 발생에 맞춰 17일 곡성섬진강천문대에서 공개관측회를 개최한다.

슈퍼문은 달이 지구에 가장 가까운 근지점을 지날 때 뜨는 보름달을 의미한다. 이번 슈퍼문은 달이 지구와 35만7200km까지 근접해 올해 가장 크게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공개관측회는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되며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방문객들은 천체

망원경을 통해 직접 슈퍼문을 관측할 수 있으며 달에 관한 특별 강연도 들을 수 있다.

천체투영실과 4D상영관에서 전문영상을 관람하고 스마트폰으로 달 사진을 촬영하는 체험도 할 수 있다. 행사장에는 보름달 포토존이 마련되며 참가자들에게는 과학교구와 브로마이드가 증정된다.

행사는 오전 및 기상 상황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다.

자세한 안내는 곡성섬진강천문대 홈페이지(<http://www.gokseong.go.kr/sta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천문대 전화(061-363-8528)로 가능하다.

곡성군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방문객들이 곡성의 청정한 가을 하늘 아래에서

슈퍼문뿐만 아니라 토성과 가을철 별자리 등 다양한 천체를 관측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곡성=김대영 기자



제1회 나주교육 박람회 나주교육지원청, 24~26일



나주교육지원청이 주최하는 제1회 나주교육 박람회가 오는 2024년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서 개최된다.

15일 나주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이것이 나주교육이다 × 64교 = 이것이 나주교육이다’를 주제로 한 이번 박람회는 나주 관내 유·초·중·고·특수학교가 참여해 나주교육의 강점인 학교의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학교 교육과정 및 특색 교육활동을 선보인다.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올바른 진로진학 정보를 제공하고 제한적공통학구제를 활용한 학교선택권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학생들의 흥미와 요구에 맞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공공기관 및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진로진학 프로그램 외에도 인문학적 소양을 기르는 독서인문 프로그램,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창의융합 체험 프로그램 등이 다채롭게 준비되어 있다.

제1회 나주교육 박람회는 교육공동체가 함께 나주 교육의 미래를 고민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서의 의미도 크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과 함께 나주 미래교육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는 명사 초청 특강, 교육감과 함께하는 미래교육 토크콘서트, 나주교육 비전선포 등을 통해 나주 교육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과 나주 교육의 미래를 함께 그려보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변정빈 나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나주 관내·외 학생, 학부모 등에게 다양한 교육 체험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나주교육의 장점을 홍보하고,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며 “남은 기간 학생, 학부모님들께 의미있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나주=김용의 기자

잔디객토 지원 사업 추진 영광군, 생산성 향상 목표

영광군(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김정섭)은 잔디재배 농가의 소득 증대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잔디객토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업 추진을 위해 군은 지난 4월 사업 신청 공고를 통해 잔디재배 15 농가, 11ha를 최종 대상으로 확정했으며 사업비는 총 4억4000만원(보조금 90%·자부담 10%)으로 올해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시공에 들어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잔디밭 객토는 수십 년간 잔디 생산으로 흙이 지속적으로 유실됨에 따라 농경지 지력을 올리기 위한 사업으로 다른 곳에서 건강한 흙을 가져와 토양의 성질을 바꾸는 작업이다.

영광군 잔디 재배 면적은 117ha·81 농가이며 이번 사업 추진을 통해 건강한 토양자원을 보충하고 양질의 토질관리로 고품질 잔디 생산을 위한 기반을 다져 나갈 것으로 보인다.

영광=김도윤 기자

화순군, 전입장려금 20만원 지급 20개월 거주 경과 주민 대상

화순군은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화순군으로 전입한 후 20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군민에게 1인당 20만원의 전입장려금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화순군 전입장려금은 당초 전입신고 6개월 경과 후부터 36개월까지 총 3회에 걸쳐 25만원을 나눠 지급해 왔지만 군민 편의를 위해 전입신고 후 20개월 경과 시 20만원의 장려금을 일시지급 받을 수 있도록 변경했다.

지원 대상은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2020년 12월 15일 이후 화순군에 전입해 주민등록을 두고 20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군민으로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며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전입신고 시 사전 신청도 가능하다.

대상자는 20개월 경과 후 주민등록 확인 등 거주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하며 장려금은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조례 개정일인 2024년 10월14일 이전 전입장려금 지원 신청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라 전입장려금을 지급한다.

화순군은 전입장려금 외에도 화순군 결혼장려금, 전남 청년부부 결혼 축하금, 학생 전입축하금, 전입세대 이사비용 지원 등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군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 누리집 공지 사항을 참고하거나 화순군 인구정책팀과 인구정책팀(061-379-3258)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미화인구정책팀장은 “농촌인구가 가파르게 감소하고 현시점에 전입 장려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 시행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지역 여건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중 기자



화순군 드림스타트가 지난 12일 화순초등학교에서 ‘가족사랑 운동회’를 열었다.

화순군 제공

화순군 드림스타트, 가족사랑 운동회

화순군 드림스타트가 지난 12일 드림스타트 가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순초등학교 한마음관에서 가족사랑 한마음 운동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15일 화순군 드림스타트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 참석한 가족들은 청팀과 홍팀으로 나누어 훌라후프 통과하기, 풍선탑 세우기, 낙하산릴레이 등 다양한 게임 프

로그램에 참여했고 가족이 하나가 되어 경기에 참여하면서 응원 함성과 댄스 타임 등을 통해 모처럼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었다.

한마음 운동회는 가족 간 소통과 협력을 경험하면서 아동들의 건강한 가족관계형성과 신체활동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화순=김선중 기자

곡성군, 전국요리 경연대회 연다

27일 섬진강기차마을 장미공원

곡성군이 어린이대축제 마지막 날인 오는 27일 곡성섬진강기차마을 장미공원 무대에서 ‘곡성 전국요리경연대회’를 개최한다.

15일 곡성군에 따르면 지역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재료로 활용해 누구나 맛있게 맛볼 수 있는 요리를 선보이는 자리로 ‘우리 가족은 쿡(cook)가대표’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곡성군은 본 요리경연대회를 통해 지역 내 농특산물을 활용한 메뉴를 개발해 농특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음식관광의 수요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제24회 곡성섬진강어린이대축제’ 기간 중 대회를 개최해 온 가족이 특별하고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 9월13일부터 지난 14일까지 한

진로 및 직업 체험으로 풍선아트와 페이스페인팅 등 체험부스와 마술쇼·버블쇼까지 제공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이선화 가정활력과장은 “드림스타트 아동과 가족들이 함께 뛰어놀고 즐기면서 소중한 추억의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 많이 진행하여 자라나는 아이들이 누구도 소외받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중 기자

달 동안 참여자 모집공고를 통해 15팀의 참가자를 모집했고 16일~17일 2일간 서면심사를 거쳐 최종 참가팀을 확정하게 된다.

곡성군 관계자는 “곡성 지역의 농특산물을 활용한 요리의 완성도와 맛, 대중성, 창의성 등을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심사해 수상자를 결정하게 된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곡성만의 새로운 요리를 개발하고, 곡성군이 음식관광의 대표 여행지로 도약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곡성=김대영 기자

